

이용자 중심의 주제어 기반 분류를 위한 주제명 개발에 관한 연구: 지식조직체계 분석을 바탕으로*

A Study on Construction of Subject Headings for the Word Based Classification

백지원(Ji-Won Baek)**

초 록

본 연구는 도서관 장서의 분류를 위하여 기존의 문헌 분류체계 대신 주제어 기반의 분류를 적용하고자 할 때 필수적인 주제명 개발의 필요성을 논하고, 개발 방법론의 하나로 기존의 다양한 지식조직체계의 주제어를 활용하는 방법의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분석 대상 저작을 선정하고 이에 대하여 부여된 문헌분류, 주제명표목, 국내외 대형 서점의 분류, 서가명 및 주제어, 이용자 태그 등 다양한 지식조직체계의 주제어를 수집하여 그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 전통적인 도서관 중심의 지식조직체계와 상업성이 중심이 되는 지식조직체계의 성격과 범주화의 방식이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이용자 태그는 최상위 빈도수의 태그인 경우 전통적인 지식조직체계 및 상업적 영역의 지식조직체계와 어휘의 측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는 결과를 나타냈으나, 이용자 중심의 주제어로서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분류를 대체하는 주제명 작성을 위해 기존의 지식조직체계를 활용할 때 고려해야 할 각각의 특성 및 상호 관계를 분석하였고, 국내에서의 적용을 위한 실질적인 고려사항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necessity of the subject heading construction for the word based classification and to suggest a methodology that uses various knowledge organization systems(KOS). For this purpose, six kinds of KOS were collected for the 20 selected works in each subject. The collected subjects were analysed in terms of constructing a subject heading for the word based classification.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s that there is a noticeable difference between the library oriented KOS and commercial oriented KOS. In addition, user oriented tags are more similar to the commercial sector's concerning subject categorization than the library oriented ones. However, there is no noticeable difference among the library oriented KOS, commercial sector oriented KOS, and user oriented tags regarding the subject vocabulary. Some practical implications were suggested for the application to the Korean libraries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키워드: 주제명, 주제명표목, 지식조직체계, 듀이 프리, 주제어 기반 분류
subject, subject heading, knowledge organization system, dewey free, word based classification

* 이 논문은 2010년도 제17회 한국정보관리학회 추계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것을 수정·보완한 것임.

**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 전공 강사(jw.baek@naver.com)

■ 논문접수일자: 2011년 2월 18일 ■ 최초심사일자: 2011년 2월 23일 ■ 게재확정일자: 2011년 3월 10일
■ 정보관리학회지, 28(1): 171-193, 2011. [DOI:10.3743/KOSIM.2011.28.1.171]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문헌정보학에서 이용자는 항상 주요한 관심사이다. 도서관 및 정보센터의 궁극적 이상은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최대한 만족시켜 주는 것에 있으며,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정보서비스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한복희 2003). 근래 들어 이용자 참여를 근간으로 하는 Library 2.0의 개념이 보편화되면서 문헌정보학의 학문 및 실무 영역에서 이용자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도서관과 정보서비스의 영역 전반에서 이용자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데 반해, 정보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근간이 되는 분류나 목록과 같은 정보조직 부문에서는 정작 이용자 중심의 관점이 별로 고려되지 않아 왔다. 정보조직의 영역은 문헌정보학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고유의 전문성이 높은 영역으로 여겨져 사서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실무를 수행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시 되어왔다. 더구나 1990년대 이후 디지털 도서관이 본격화되면서, 기존의 인쇄매체를 중심으로 한 장서와 그 장서의 조직화에 대한 관심이 전자매체 및 접근에 관한 관심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정보를 조직하는 방식, 특히 실물장서의 배가 및 분류에는 상대적으로 별다른 변화나 발전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정보조직에 이용자 참여나 관점을 고려하고자 한 경우, 이용자 태그를 활용하여 검색 접근

점을 확대하고, 이용자 평가를 추가하는 등 기존의 목록을 보완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반면, 실물 장서의 배가를 결정하는 분류의 차원에서는 이용자의 관점이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대중이 생성하는 분류인 폭소노미(folksonomy)가 전통적인 택소노미(taxonomy)의 개념에 대응되는 것으로 회자되지만, 이는 주로 웹 자원의 분류를 위해 사용되거나 자원에 대한 이용자 태그 정보의 범주화를 통해 새로운 분류를 구성하고 이를 패시브 브라우징이나 검색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 물리적인 자원의 정보조직 방식으로는 거의 적용되지 않았다. 결국 이용자가 도서관의 실물 장서를 대면하는 방식에는 오랜 시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근래 미국의 공공도서관에서 기존의 DDC 중심의 분류체계에서 벗어나 보다 이용자 친화적인 분류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제어로 분류를 대신하거나 주제어로 DDC를 보완하는 주제어 기반의 분류가 적용되는 사례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우리가 흔히 도서관에서 보는 청구기호는 분류의 표목 어휘 대신 숫자 혹은 문숫자로 구성되어 있으나, 분류 번호가 나타내는 해당 개념을 직접 분류 어휘로 나타낸다면 더욱 직관적인 이해와 자료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 주제어 기반 분류법이며, 이는 대다수의 대형 서점에서 분류를 위해 사용하는 방식이기도 하다(백지원 2010).

주제어 기반 분류에서의 주제어는 실물 장서의 배가를 위한 분류지의 역할을 하므로 분류자 임의로 부여할 수 없다. 즉, 문헌분류표와 같

이 적절한 항목과 어휘로 구성된 주제명표가 마련되고 이에 기반하여 분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의 경우, 주제어 기반 분류를 시작한 초기 도서관들은 대부분 출판 산업계의 주제명 표준인 Book Industry Standards and Communications Subject Heading(BISAC SH)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새롭게 자신들의 주제명 표목을 개발하였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상 기반으로 삼을만한 표준적인 주제어 분석 도구가 없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의 주제명표목이 있으나 이들은 주로 검색을 위한 매크로 시소러스의 기능이 큰 것으로, 서가 배열의 기준으로 사용되기 위해 분류를 대체할 표목의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나 광범위하여 주제 범주 구분지로서의 성격이 약하다.

DDC의 사용에 있어서 일반 이용자들은 주제를 일상적인 어휘가 아닌 분류체계 특유의 기호로 표현한다는 점, 그리고 이용자들이 직관적으로 떠올리는 주제가 아닌 학문분야나 연구 영역에 따라 범주화가 이루어지는 점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주제어 기반 분류의 주제명은 이용자가 분류 항목명으로서 쉽게 이해하고 친숙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동시에 기존의 분류번호 처럼 주제 분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주제명표 작성을 위해 기반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문헌정보학 및 인접 영역에서 다양하게 작성되어 활용되고 있는 용어 리스트, 분류체계, 주제명표목, 시소러스 등 다양한 지식조직체계이다. 이들은 그 주된 용도, 조직 방식, 특성, 포괄 범위 등 그 접근 방향과 방법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자원을 용어나 용어간의 관계로 표현하여 자원의 축적과 검색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제 분석 도구로서 공통점을 가진다(백지원, 정연경 2005). 따라서 주제명 기반 분류를 위한 주제명 개발을 위해 다양한 지식조직체계를 활용하는 것은 기존의 주제 분석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면에서 효율적인 것이다. 또한 상업적 영역의 주제 분석 도구인 대형 서점의 분류 방식과 서가명 등도 주제어 개발의 기반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태그는 기존의 전통적인 지식조직체계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용자가 부여하는 일종의 색인어라는 의미에서 일련의 지식조직체계의 연속선상에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위치할 수 있는 것이다. 이용자 중심의 분류를 위해서는 기존의 전문가가 구성한 지식조직체계와 다른, 이용자가 생각하는 저작의 주제를 가장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가장 적합한 데이터는 이용자가 직접 부여한 태그 정보이다. 따라서 지식조직체계의 흐름과 함께 고려할 때 태그의 어떤 점이 특징적으로 고려되고 어떤 점에서 시사점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용자 중심의 주제어 기반 분류를 위한 주제명 개발을 위해 기존의 다양한 지식조직체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실질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식조직체계 각각의 형식적인 특성과 내용면에서 주제어를 비교 분석하고, 지식조직체계 상호간의 관계에서 주제어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고찰하며, 그 활용에 따른 고려 사항을 논의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주제어 기반 분류를 위한 주제명 개발을 위해 다양한 지식조직체계의 활용 가능성을 고찰하고 활용 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설계를 하였다.

첫째, 분석 대상 저작을 선정하였다. 분석 대상 저작을 선정하기 위해 국내 최대의 온·오프라인 서점인 교보문고에서 제공하는 최근 5년간의 스테디셀러 도서 목록을 수집하고(2010년 6월 11일 기준), 그 중 주제 영역에서 '자기계발' 분야를 선택하였다. 스테디셀러는 수년간 꾸준히 이용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저작이므로, 주제 분석 데이터의 확보에 있어서 양적으로 충분하고 질적으로도 안정적인 데이터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전 주제 분야를 통합한 'Top 스테디셀러' 중 소설 3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기계발' 분야에 속할 정도로 '자기계발'은 국내 일반 독자의 지속적인 관심이 가장 높은 주제 분야로 밝혀졌으므로, 주제어 기반 분류가 적용되는 공공도서관의 환경 및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반영하기에 적합한 분야로 판단되었다.

선정된 저작 중 외국의 주제 분석 정보 활용을 위하여 외국에 널리 알려지지 않아 주제 정보가 빈약한 동양 저작의 저작은 제외하고 서양 저작의 저작을 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¹⁾ 또한 픽션은 주제어 기반 분류의 적용 이전에도 DDC 이외의 분류 방식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주제어 기반 분류의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논픽션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²⁾ 이러한 선정 작업의 결과, 교보문고의 최근 5년간 스테디셀러의 '자기계발' 분야 상위 31위의 목록 중 20건의 저작이 분석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었다(부록 참조).

둘째, 선정된 저작에 부여된 주제어를 수집하기 위하여 <표 1>과 같이 6개 유형, 16개의 지식조직체계를 선정하였다. 주제어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2절에 제시하였다.

셋째, 선정된 저작에 대해 부여된 각종 주제어들의 분포 분석을 통해 특정 저작이 분류되는 주제 범주의 양상을 파악하여 전통적인 주제 분류 범주와 비교하였다. 또한 선정된 저작에 대하여 16개 지식조직체계에 나타난 주제어 분석을 통해 주제어의 선택과 동일 주제어를 표현하는 어휘의 선정 방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상과 같은 방법을 통해 본 연구는 주제어 기반 분류를 위한 주제명 개발을 위해 각종 지식조직체계의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식조직체계 각각의 특성 및 상호적 특성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파악하고자 하였다. 첫째, 주제 범주화의 측면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학문 분류체계에 기반한 분류체계의 주제 범주와 이용자 관점의 주제 범주에 어떠한 차이와 특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둘째, 다양한 지식조직체계의 주제어를 어휘의 차원에서 비교 분석하여 사용하는 어휘에 차이와 특성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1) 달라이 라마의 저작은 미국 공공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다른 서양 저작의 저작과 비슷하게 충분한 양의 주제 분석 결과가 있었으므로 포함시켰다.
2) 선정된 저작 중 '자기계발' 분야라는 영역의 특성상 우화의 형식이나 소설의 형식으로 기술된 저작은 서점, 도서관, 혹은 이용자에게 따라 에세이나 소설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었다.

〈표 1〉 분석 대상 지식조직체계의 유형 및 내용

| 지식조직체계의 유형 | 분석 대상 | | 분석 내용 |
|------------|---|---------------------|---|
| 문헌분류 | KDC 5판, DDC 22판 | | 저작에 부여된 분류번호의 표목 |
| 서점 분류항목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및 4개 대형서점 Amazon, Barnes & Nobles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보문고: '이 책이 속한 분야' • 영풍문고: '이 책의 분류' • Amazon: 'Categories', 'Browse by Genre', 'Look for Similar Items by Category' • Barnes & Nobles: 'Browse' |
| 서점 서가명 | 교보문고 | 광화문, 잠실, 강남, 분당, 목동 | • 온라인 서점 검색결과로 제시되는 각 지점의 실물 장서를 배가한 서가명 |
| | 영풍문고 | 종로, 강남 | |
| 서점 주제어 | 교보문고와 Amazon의 주제어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보문고: '주제어' • Amazon: 'Look for Similar Items by Subject' |
| 주제명표목 | LCSH NLSH, 국립중앙도서관 비통제색인어 BISAC SH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C Catalog의 주제명표목 • 국립중앙도서관 목록의 주제명표목 및 비통제색인어 • 주제어 기반 분류를 사용하는 도서관에서 해당 저작에 대해 부여한 출판계의 주제명표목 |
| 이용자태그 | LibraryThing, Amazon | | 각 사이트의 이용자가 저작에 대해 부여한 태그 |

1.3 선행연구

주제어 기반 분류는 2007년 미국 공공도서관에서 시작되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이론이나 학술적인 연구는 거의 발표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DDC 등 기존 문헌 분류 방식이 보다 이용자 중심적이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분류 방식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계속 되어왔다.

먼저 분류의 측면에서 이용자의 관점을 중요시한 주장의 하나로, 일찍이 Maltby(1978)는 “DDC에 도전할 만한 것이 나온다면, 그것은 이용자의 관심에 기반한 분류일 것이다”라고 하여 분류에서 이용자 관점의 중요성을 밝힌 바 있다. Woodward(2005, 71-72) 역시 DDC 체계에서는 하나의 주제가 여러 군데로 분산 배가되어 한 곳에서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사서는 학문과 혼련과 경험을 바탕

으로 하여 정보의 혼란을 질서정연하게 하기 위한 책임자이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이용자와 사서는 그들의 초점을 맞추는데 실패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여 도서관의 분류가 보다 이용자 중심의 성격을 갖추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근래 주제어 기반 분류의 등장을 전후로 하여 도서관의 정보조직 분야가 보다 이용자 중심적인 시각을 가져야 함을 주장한 여러 사례들이 있다. Kenney(2007)는 “이용자들은 책을 비롯한 각종 자원을 ‘이용’하려 오는 것이지, 도서관의 독특한 시스템을 ‘배우려’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DDC의 방식은 이용자에게 친근하고 편리한 방식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서들 자신이 아니라 이용자들에게 직관적인 도서관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Courtright(2010) 역시 “너무나 오랫동안 사서들은 진실로 이용자들이 원하는 것

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없이, 무엇이 가장 최선이고 어떻게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는지를 이미 잘 안다고 생각해왔다”고 주장하고, 분류 역시 이러한 인식하에서 이루어져 왔으므로 분류와 이용자의 요구 사이에 괴리가 있었음을 밝혔다.

한편, 분류에 있어서 이용자의 관점을 도입한 실질적인 사례들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가 있다. Sapiie(1995)는 ‘이용자 관점에 따른 분류법(Reader-interest classification)’에 대한 1980년~1995년 사이의 각종 문헌을 검토하여 이용자 관점의 분류법을 사용하는 동기, 주제 항목 구분의 방법, 주제 항목의 내용과 형식, 효과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각종 분류 체계가 반드시 자관의 요구에 맞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도서관 이용자 집단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적절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국내의 관련 연구로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대형서점과 공공도서관의 분류 방식에 따른 탐색용이성을 비교하고, 이용자들이 대형서점의 분류 방식이 도서탐색에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음과 그 구체적인 요인을 설문조사의 방식으로 밝힌 연구가 있다(오경은, 김기영 2008). 이 연구에 따르면 이용자들이 대형서점의 분류 방식이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대형서점의 분류 방식이 이용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더 잘 나타내주며, 탐색의도에 더 잘 맞고, 분류항목 내에 유사한 도서들이 더 잘 모여 있으며, 분류표체계와 분류항목명의 이해가 더 쉽고, 분류항목명도 더 친숙하다고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는 이용자들이 대

형서점의 분류방식을 선호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국내 환경에서 실증적으로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의 DDC와 같은 전통적인 문헌 분류법 보다 이용자의 관점을 중요시한 새로운 유형의 분류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외국 공공도서관의 사례를 분석한 연구가 있다. 백지원(2010)은 미국 공공도서관의 주제어 기반 분류 적용 사례를 조사하여 이러한 분류법을 사용하게 된 배경과 적용 과정을 분석하고, 주제어 기반 분류의 유형을 DDC를 사용하지 않고 주제어로 분류를 대체하는 듀이 프리(Dewey free)의 방식과 주제어로 DDC 분류를 보완하는 혼합식 분류의 방식으로 구분하여 그 상세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노지현(2010)은 북미 지역 공공도서관에서 나타나는 장르 분류의 적용 양상과 특징을 분석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장르 분류는 자료의 주제뿐 아니라, 자료 유형, 이용 대상자, 소설의 특정 장르, 이용 목적, 언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군집화와 체계화한 결과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분류에서 이용자 관점을 중요시해야 하는 필요성과, 이용자가 실제로 공공도서관의 분류 방식보다 서점의 방식을 선호한다는 사실 및 그 이유가 밝혀진 바 있으며, 실질적인 이용자 관점의 분류 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주제어 기반 분류를 위해 필수적인 주제명표의 개발에 관해서는 미국 공공도서관에서 BISAC SH를 기반으로 자관의 장서 및 환경에 맞게 조정하여 사용하는 사례들이 알려져 있을 뿐, 이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실

질적으로 이용자의 관점에 적합한 주제명의 개발 방법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진 바가 없으므로 특히 주제어 개발이 미약한 국내 도서관 환경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할 수 있다.

2. 주제어 수집 및 분석

2.1 문헌분류체계

문헌분류체계의 주제명 분석을 위하여 분석 대상 저작 20종에 대하여 Library of Congress와 국립중앙도서관 목록에서 각각 DDC 22판과 KDC 5판에 기반하여 부여된 분류번호를 수집하고, 이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각각의 표목을 수집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문헌분류의 주제 항목 범주화 방식의 상대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 대상 저작의 DDC 분류번호의 해당 표목에 연결되어 있는 상관색인어에 나타나는 주제 분야를 수집하여 이를 총류 수준에서 상관 색인 주제어와 비교하였다.

2.2 서점 분류 항목

서점의 분류 항목은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분석 대상 주제 분야인 '자기계발' 영역이 서점에서 분류되어 있는 체계를 보다 포괄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교보문고, 영풍문고 외에 국내 대형 온·오프라인 서점인 Yes24, 알라딘, 대교 리브로, 반디앤루니스 등 4개 서점을 추가하여 총 6개 서점에서 '자기계발'에 해당하

는 분야의 분류 체계를 비교하였다. 외국 서점으로는 세계 최대의 온라인 서점인 Amazon의 '항목(Categories)'과 '장르별 브라우징(Browse by Genre)', Barnes & Nobles의 '브라우징 주제(Browse)' 중 '자기계발' 분야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이러한 체계 내에서 분석 대상 저작이 분류되어 있는 분류 항목을 수집하였다. 온라인 교보문고의 경우 '이 책이 속한 분야'라는 명칭을, 온라인 영풍문고의 경우 '이 책의 분류'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2.3 서점 서가명

국내 대형 서점 중 온라인 교보문고와 영풍문고는 책을 검색하면 오프라인 서점에서 해당 책이 배가되어 있는 실제 서가의 명칭과 위치를 보여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서가명은 저작이 갖고 있는 주제 혹은 기타 특성을 하나의 용어로 표현하는 것이므로 오프라인 서가에서 저작에 대한 첫 번째 접근점이 된다.

서점의 서가명은 교보문고의 광화문, 잠실, 강남, 분당, 목동점 등 5개 지점, 그리고 영풍문고의 종로, 강남점 등 2개 지점에서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2.4 서점 주제어

국내의 서점 중 저작에 대한 주제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분석 대상 서점 중 국내의 경우 교보문고에서 검색된 저작 정보 중 주제어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고, 국외 서점 중에서는 Amazon이 검색된 저작에 대하여 'Look for Similar Items by Subject' 기능을 제공하고 있

다. 이들 주제어를 수집하여 다른 지식조직체계와 구분되는 서점 주제어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활용하고자 하였다.

2.5 주제명표목

주제명표목으로는 전통적으로 문헌정보학 영역에서 사용되어 온 주제명표목과 더불어, 이용자가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출판 산업계의 주제명표목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전통적인 주제명표목으로는 오랜 전통과 권위를 갖고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미국 의회도서관 주제명표목(LCSH)과 우리나라의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NLSH)을 선정하여 분석 대상 저작에 부여된 각각의 주제명표목을 수집하였다. LCSH는 LC Catalog를 통해 수집하였고, LC Catalog에 LCSH 정보가 없는 몇몇의 경우 OCLC의 WorldCat을 이용하여 해당 저작을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LCSH를 수집하였다. NLSH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목록 정보를 통해 수집하였다.

출판 산업계의 주제 분석 도구로는 주제명표목이면서 동시에 분류의 역할을 하는 출판 및 서점 관련 산업계의 주제명표목인 미국의 BISAC SH를 분석하였다. BISAC SH는 주제어 기반 분류를 적용한 미국 공공도서관 중 두이 프리의 방식을 적용한 4개관과 혼합식 분류 방식을 적용한 4개관의 목록을 검색하여 분석 대상 저작의 분류를 위해 사용한 주제어를 수집하였다.

2.6 이용자 태그

이용자의 관점을 반영한 분류용 주제어의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자 태그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용자 태그는 대부분 별다른 작성 규칙이나 지침 없이 부여되므로 전문가가 설계하고 부여한 분류 표목이나 주제명, 시소러스의 디스크립터 등 통제된 색인 어휘와는 달리 이용자가 각자의 관점에 따라 선택한 자연스러운 어휘가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태그는 단 복수, 유의어와 동음이의어, 오타자, 용어의 변형, 미묘한 개념적 크기나 뉘앙스의 차이로 인한 다양한 어휘 등 비통제 어휘로서의 문제점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태그가 일정한 수준의 규모에 도달할 때에러야 비통제 어휘로서 필연적인 노이즈를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 저작을 대상으로 충분한 양의 태그가 작성되어 집단지성이 유의미하게 발현될 수 있는 사이트를 선택하고자 하여, 사회적 편목(social cataloging) 사이트로서 활발한 태깅이 주요 특징 중 하나인 LibraryThing(LT)과 온라인 서점 Amazon의 태그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LT와 Amazon은 각각 관련 업종의 온라인 사이트로서 가장 규모가 커서 축적된 데이터의 양이 많으므로 이용자들 간의 자연스러운 정화기능을 거쳤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고빈도수의 태그를 선정하여 주제적 성격, 비주제적 성격의 태그 비율과 그 내용을 파악하고, 전통적인 지식조직체계의 어휘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3. 분석 결과

3.1 개별 분석

3.1.1 문헌분류체계

주제 범주화의 측면에서 서점 분류에서의 ‘자기개발’ 분야는 DDC 및 KDC의 문헌분류체계(10구분) 수준에서 ‘철학 및 심리학’, ‘기술과학’, ‘문학’ 등의 순으로 분류되었다. 그런데 20건의 분석 대상 중 8건이 해당되는 ‘기술과학’의 경우, 사실상 그 내용은 대부분 강(DDC 100구분) 수준에서 ‘경영 및 보조서비스’에 해당한다. 또한 데이트와 이성 선택에 관한 내용인 『남자들은 왜 여우같은 여자를 좋아할까?』는 아래와 같이 ‘기술과학’과 ‘의복, 봉제’와 함께 범주화되어 있어서 십진식 분류법에 익숙지 않은 일반 이용자들은 해당 분류 방식을 쉽게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 600 Technology(Applied sciences)
- 646 Sewing, clothing, management of personal and family life
- 646.7 Management of personal and family life
- 646.77 Dating and choice of mate

한편, 주제어를 기준으로 한 주제 영역 범주

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DDC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표목의 상관색인어에 나타나는 주제 영역을 분석하면, ‘경영·관리’, ‘심리학’, ‘윤리’, ‘삶의 기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앞선 문헌분류체계에 따른 분류와 상관색인 주제어에 따른 분류를 비교하면 두 가지 모두 심리학과 경영 영역이 순위는 다르지만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점은 동일하다. 하지만 이는 개념적인 수준의 비교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이는 것일 뿐, DDC에서는 경영이라는 개념이 기술과학 아래 포함되어 있어서 실물 장서를 구분하는 차원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또한, 문헌분류체계의 경우 주제 분류의 영역 뿐 아니라 소설이라는 문학 범주가 주요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주제 접근을 선호하는 일반 이용자들에게 문학이라는 장르 분류와 그 아래에서 저작의 언어나 저작의 국적 등으로 분류하는 DDC의 방식은 일반 이용자의 정보 이용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

한편, 중복 분류된 경우를 제외하면 분석 대상 저작에 부여된 DDC와 KDC는 총류 수준에서 완전하게 일치하였고, 주제 어휘의 측면에서도 DDC와 KDC 분류에 따른 표목은 두 분류표의 세분 정도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몇몇 개념적 상세함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거의 일치하는 것

〈표 2〉 DDC의 해당 범주 및 상관색인 주제어에 따른 분류

| DDC 범주 | 횟수* | 상관색인 주제어 | 횟수 |
|-----------------------|-----|----------|----|
| 철학 및 심리학 | 9 | 경영·관리 | 6 |
| 기술과학 > 경영 및 보조서비스 | 7 | 심리학 | 5 |
| 기술과학 > 생활과학/가정 및 가족관리 | 1 | | |
| 문학 | 5 | 윤리 | 2 |
| | | 삶의 기술 | 1 |

* 중복 분류 포함

으로 파악되었다.³⁾ 그러나 범주의 명칭에 있어서 문헌분류체계의 총류는 어휘가 보다 추상적이고 학술적인 반면, 색인어에 따른 범주는 보다 구체적임을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문헌 분류체계에 따른 범주화는 상관색인에 따른 주제 범주화와 공통점과 상이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3.1.2 서점 분류 항목

1) 국내 서점

교보문고에서 '자기계발'로 분류되는 분석 대상 저작들이(그 중 2종은 '문학'으로 중복 분류됨) 영풍문고에서는 '문학' 8종, '경제·경영' 12종으로 분류되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각 분류 항목 아래의 세구분은 더욱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서점의 분류 항목 자체가 서점별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표 3 참조). 교보문고는 '자기계발' 영역을 총 3단계, 43개의 최하위 항목으로 세분하고 있다. 반면, 영풍문고는 '경영 경제' 아래 '처세'라는 2단계, 단 1개

의 분류 항목만을 가지고 있다. 교보문고, Yes24, 대교리브로, 반디앤루니스 등은 '자기계발'과 '경제 경영'이 각기 다른 영역이지만 영풍문고와 알라딘의 경우 '자기계발' 영역이 '경제, 경영'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서점의 분류 항목 및 명칭은 대체로 주제 영역(예: '자기계발' 혹은 '경영 경제')이나 문학 형식(예: '외국수필')을 주로 항목 구분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성공'과 '처세'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등장한다는 정도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 뿐, 분류의 항목 구분에서 특정한 기준이나 일정한 패턴을 발견할 수 없었다.

2) 국외 서점

Amazon은 '도서 브라우징(Browse Books)' 아래 '항목(Categories)'이라는 방법과 '장르별 브라우징(Browse by Genre)'의 두 가지 방법으로 책을 찾아볼 수 있도록 분류하고 있다. '항목'의 경우 주제, 자료의 형태, 장르, 이용 대상 등 다양한 기준이 복합적으로 사용된 3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이한 점은 분석 대상 저

〈표 3〉 '자기계발' 영역의 서점 분류 항목 비교

| 서점명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 교보문고 | 자기계발 | 성공/처세 등 6개 | 자기혁신/자기관리 등 43개 | - |
| 영풍문고 | 경영 경제 | 처세 | - | - |
| Yes24 | 자기관리 | 처세술/삶의 자세 등 10개 | - | - |
| 알라딘 | 경제 경영 | 자기계발 | 삶의 자세/정신훈련 등 5개 | 느리고 소박한 삶 등 18개 |
| 대교 리브로 | 자기계발 | 성공/처세/리더십 등 7개 | - | - |
| 반디앤루니스 | 자기계발 | 성공/처세 등 6개 | 성공스토리 등 22개 | 성공스토리일반 등 36개 |

3) 차이가 있는 사례로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라』의 경우, DDC에서는 'Applied psychology'의 측면에서 'Personal improvement and analysis'로 분류되었고, KDC에서는 '윤리학, 도덕철학'의 측면에서 '인생훈(Moral instruction)'으로 분류되었다. DDC에는 '자기계발'의 개념이 '응용 심리학'의 하위 개념으로 설정되어 있었으나, KDC에는 '자기계발'이라는 개념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작과 관련된 'Health, Mind & Body'와 'Self-Help'가 34개 항목 중 동급의 항목인데, 'Health, Mind & Body'의 21개 하위 항목 중 하나로 'Self-Help'가 다시 나온다는 점이다(표 4 참조). 이는 이용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항목이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계층성을 무시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장르별 브라우징'은 주제, 자료의 형태, 장르, 이용 대상, 언어, 특가 도서 등 다양한 기준이 복합적으로 사용된 3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르별 브라우징'은 '항목'과 항목의 수가 같고 내용적으로 대체로 유사하지만 '도서 브라우징(Browse Books)' 아래 있는 기타 다른 기준에 의해 구분된 소항목들이 함께 섞여 있어서 '항목'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장르별 브라우징'에서는 'Health, Mind & Body'의 하위 항목으로 'Self-Help'가 나오지만 '항목'에서와는 달리 이 두 항목이 동일 계층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항목'과 '장르별 브라우징'이 별도로 존재하는 이유나 구체적인 기준을 발견하기 힘들다.

Barns & Nobles의 경우 42개 브라우징 주제 중 'Self Improvement' 아래 8개 항목이 있

는데, 이들 8개 하위 항목 중 하나인 'Personal Growth' 아래에 또 다시 'Self Improvement'가 존재한다(표 4 참조). 이는 Amazon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항목을 서로 다른 레벨에 중복 배치하였거나 서로 다른 크기 혹은 범위의 개념을 동일한 어휘로 지칭함으로써 계층성을 무시하고 대신 주요 주제어의 반복 노출을 통해 브라우징의 효과를 높이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Amazon의 경우 분석 대상 저작이 속한 분류 항목은 유사 항목('Look for Similar Items by Subject')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총 20종의 저작에 69개의 유사 항목(저작 1개당 3.45개)이 부여되어 있으며 대상 저작에 대한 1단계 분류 항목으로는 'Business & Investing'과 'Health, Mind & Body'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작이 분류된 항목의 비교에 있어서 교보문고의 '자기계발' 분야가 Amazon의 경우 'Business & Investing'과 'Health, Mind & Body'로 항목 구분되고 있으며, 분석 가능한 16개 저작 중 8개 저작에 'Business & Investing'과 'Health, Mind & Body' 항목이 동시에 부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내 대형서점의

〈표 4〉 미국 서점의 항목 구성별 기준 및 중복성

| 구분 | 브라우징을 위한 항목 구성 | 항목 구분 기준 및 항목 수 | 자기계발 분야의 항목 구성(예) |
|----------------|----------------------------|--|---|
| Amazon | 항목 (Categories) | 주제, 자료의 형태, 장르, 이용 대상 등 복합적인 기준에 따른 34개 항목 | • Health, Mind & Body > Self-Help • Self-Help |
| | 장르별 브라우징 (Browse by Genre) | 위의 '항목'과 기준이 유사하고 항목의 수는 34개로 동일하나 구성에는 차이가 있음 | • Health, Mind & Body > Self-Help |
| Barns & Nobles | 주제 브라우징 (Browse) | 42개 주제(Fiction, Study Guides & Test Prep을 제외하고는 모두 내용적인 주제 구분) | • Self Improvement > Personal Growth > Self Improvement |

분류에서 '자기계발' 분야와 '경영 경제' 분야가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나타났던 것과 동일한 분류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국내의 서점 분류 분석 결과, 국내의 서점 모두 항목을 구분하는 기준과 방식에서 어떤 논리성이나 일관성을 찾아내기 어려웠다. 특히 국외 서점 분류의 경우 전통적인 분류 체계에서 중요시하는 계층성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항목 설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의도적으로 이용자에게 노출을 극대화하여 판매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서점의 분류 항목의 경우 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계층성을 직접적으로 무시하고 분류 항목을 구성한 사례는 없었다.

3.1.3 서점 서가명

분석 대상 저작에 부여된 2개 대형 서점의 7개 지점의 서가명을 주제적 성격, 비주제적 성격, 주제와 비주제적 성격이 혼합된 것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주제적 성격의 서가명은 서점 분류 항목과 개념적으로는 유사하였으나 개념적 크기는 분류 항목 보다 크거나 작은 경우가 섞여 있었다. 비주제적 성격의 서가명인 경우 판매 방식(예: 바자회), 가격(예: 특가도서), 저자명(예: 공병호, 피터드러커), 서가 특성(예: 미니북/재고칸) 등 다양한 기준이 사용됨을 알 수 있었다. 주제적 성격과 비주제적 성격이 혼합되어 서가명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각각 서점 분류 항목명과 비주제적 성격의 다양한 기준이 혼합되어 서가명으로 사용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어휘의 측면에서 볼 때 서점 서가명은 문헌분류체계보다 이용자가 친숙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관된 패턴이나 원칙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또한 같은 서점이라도 지점에 따라 서가명에 차이가 있었는데, 서가명은 해당 지점의 고객과 지역의 성향, 판매량, 담당자의 판단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설정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⁴⁾ 이는 이용자의 흥미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것이지만 안정성 부족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3.1.4 서점 주제어

교보문고에서 제공하는 주제어는 책 소개, 목차, 출판사 서평, 분야명의 정보 등 저작에 관한 다양한 텍스트에서 핵심 키워드나 핵심 문구를 자동으로 추출해주는 분석기를 통해 생성되는 것이다.⁵⁾ 이 주제어는 사실상 저작과 관련된 콘텐츠의 모든 어절을 나누어 명사나 명사구를 위주로 자동 추출한 것이므로 관련 정보의 양에 따라 그 수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 한국어 어법상 어색한 도치 문구가 추출되는 경우(예: '원칙들 내면'), 엉뚱한 구절이 추출되는 경우(예: '목말라 하고') 등 주제어로서의 가치가 없거나 낮은 사례가 많이 포함되어 실질적인 주제어로서의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Amazon에서 제공하는 유사 항목과 유사 주제어의 경우에도 적절치 못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Fish! A Remarkable Way to Boost Morale and Improve Results*(번역

4) 영풍문고 담당자와의 통화(2010. 8. 13).

5) 주제어 부여 방식에 관한 교보문고 담당자의 답변(2010. 7. 6).

서명: 『펄떡이는 물고기처럼』)라는 저작에 대해 부여된 Amazon의 유사 항목 'Science > Biological Sciences > Zoology > Lchthyology'와 유사 주제어 'Natural History: Animal & Wildlife'는 'Fish'라는 서명의 어휘만으로 주제를 파악함으로써 주제 분석에 기반한 항목 분류와 주제어로서 적절하지 못한 사례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자동화된 분석의 결과로 제공되는 서점의 주제어를 참조할 경우 신뢰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3.1.5 주제명표목

통계적으로 볼 때, 분석 대상 저작 20종 중 17종에 1개 이상의 LCSH가 부여되어 있었으며 총 61개의 LCSH가 부여되어 한 저작 당 약 3.05개의 LCSH가 부여되었음을 파악하였다. 내용적으로는 대부분 DDC의 표목에 해당하는 주표목과 그 하위의 부표목의 형태를 취하는 LCSH를 포함하고 있었다. NLSH의 경우 대체로 LCSH 보다 적은 갯수가 부여되어 있었고 KDC와 마찬가지로 '인생훈'이라는 주제명이 독특하게 부여되어 있었다는 점 외에는 LCSH와 개념적으로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국립중앙도서관의 비통제 주제어는 NLSH에 기반하여 부여된 주제어와는 달리 본표제와 원표제, 표제관련정보를 어절 단위로 나누어 명사를 취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으므로 주제 키워드라기보다는 단순히 표제를 명사 단위로 분절한 것에 가까웠다. 따라서 이를 전문적인 비통제 주제 색인으로 간주하여 NLSH 등의 어휘와 비교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3.1.6 이용자 태그

주제명 개발을 위해 고려해야 할 이용자 태그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첫째, 이용자 태그는 상위 빈도수의 것을 선택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이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태그들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주제적 태그와 비주제적 태그가 혼합되어 있고 비통제 어휘의 특성상 이형동의어나 유사어가 많이 등장했다. 전체 태그 중 LT는 76.5%, Amazon은 79.4%에 달하는 태그가 빈도수 1일 정도로 빈도수가 낮은 태그의 비율이 높았다. 그런데 LT는 빈도수 10위 이내에 비주제적 태그가 저작당 평균 2회, Amazon의 경우 평균 0.5회 가량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어 상위 빈도수 태그에는 주제적 태그가 집중되어 있으며, 상위 빈도수의 태그에는 이형동의어나 유사어도 거의 등장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태그의 빈도수가 낮아질수록 비주제적 태그, 개인적인 태그, 통제되지 않은 이형 태그의 중복 양상이 빈번하게 나타나 주제어로서의 가치도 떨어졌다. 분류를 대체하는 주제어는 재현율을 높이고자 하는 검색어의 기능보다는 장서의 위치를 결정하고 범주화하는 분류의 기능이 우선이기 때문에 비통제 어휘라는 태그의 본질에도 불구하고 통제어휘가 갖는 통제성을 더불어 갖추어야 하므로 상위 빈도수의 태그가 유용한 데이터로 판단되었다.

둘째, 상위 빈도수의 태그 내에서도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대상 저작 중 비교 가능한 15건을 비교한 결과 LT와 Amazon의 태그는 빈도수 상위 1~2위에서 동일한 태그가 출현하는 경우가 11건이고, 나머지 4건의 경우도 상위 5~10위 내에서 동일 태그가 출현하는 것이 확

인되었다. 또한 이들 상위 빈도수 태그는 주제어 기반 분류가 사용된 실제 공공도서관의 분류 주제명과도 일치했다. 즉, 어떤 저작에 대해 부여되는 태그 중 높은 빈도수의 태그는 분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주제어를 부여할 때 태그가 신뢰성 있는 기반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빈도수의 순위를 확대하여 상위 10위 내의 태그를 비교하면 저작별로 그 출현 양상이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경향을 파악하기에 무리가 있었다. 또한 빈도수 상위 10위 내의 태그 중 LT 태그는 모두 단일 어절로 작성된데 비해, Amazon 태그는 2개 이상의 어절로 구성된 사례도 빈번하게 등장하여, 태그를 주제어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태깅 기능을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성격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태그는 어떤 저작에 대해 부여하고자 하는 주제어에 유사 동의어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 이용자의 관점에서 가장 선호되는 용어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물』은 ‘personal development’, ‘self improvement’, ‘personal growth’ 등 세 가지의 유사한 어휘가 서점의 유사 주제, 주제명표목, 태그로 동시에 사용되었다. 여기서 유사 개념을 지칭하는 전문가와 일반인의 어휘 선택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 중 이용자 태그에서는 ‘personal development’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으므로 개념상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면 주제명으로 우선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태그는 전통적인 지식조직체계에서 바라보는 주제어와는 다른 이용자 관점의 새로운 주제어를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분석 대상

자료들에 부여된 태그 중 ‘leadership’이 여러 저작에서 고르게 높은 순위에서 나타났으나, DDC의 표목 어휘와 LCSH의 주제명에서는 ‘leadership’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차이가 있었다. 이처럼 태그를 통해 전문가와 이용자 간의 주제 분석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다섯째, 태그는 최신성 있는 주제어를 소개할 수 있다. 일례로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의 사례에서는 ‘Chick lit’이라는 비교적 새로운 소설 장르가 상위 빈도수 태그 중 하나로 파악되었고, ‘자기계발’이라는 주제 영역에 맞게 ‘pop psychology’라는 용어가 상위 태그 중 등장하였다. 이러한 주제어는 DDC나 KDC, LCSH 등에서는 현재 찾아볼 수 없는 것이지만 태그와 Amazon의 유사 주제어에는 등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서점의 분류와 주제어 기반 분류를 사용하는 사례 도서관에서 분류 주제어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신규 용어가 전통적인 지식조직체계에 새롭게 진입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어려움이 있다.

3.2 상호적 분석

3.2.1 주제명 비교

지식조직체계들간의 주제명 어휘를 전통적인 지식조직체계와 상업적 영역 및 이용자 영역으로 나누어 상호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유사성과 차이점이 분석되었다. 먼저, 동일 저작에 부여된 DDC, KDC, LCSH, NLSH 간에는 주제어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었다. DDC와 KDC의 표목은 대부분의 경우 일치하였고, LCSH와 NLSH간에는 각 주제명표목이 구조

화된 방식, 포괄하고 있는 어휘의 양과 종류, 형식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었으나 주제명의 개념적 차이는 거의 발견할 수 없다. 또한 상업적 영역의 BISAC SH에 기반한 분류 주제어와 Amazon의 유사 주제, 이용자 영역의 주제어라 할 수 있는 태그 간에는 어휘상의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반면, 동일 저작을 설명하는 LCSH와 태그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분석되었다. 비교 가능한 17종의 분석 대상 저작에 부여된 LT, Amazon의 빈도수 상위 10위 태그 340개(중복 태그 포함) 및 동일한 17종의 저작에 부여된 LCSH 61개를 대상으로 했을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주제명은 4개에 불과했다. LCSH가 대체로 전조합의 형태임을 감안하여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주제명을 포함시켜도 공통적인 주제명은 9개에 불과했다. 태그에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설명하는 개념적으로 유사한 어휘와 비주제적인 태그가 섞여 있는 것에 비해, LCSH는 개념적인 유사어 보다는 해당 저작에 관한 다양한 학문적 측면을 나타내주는 주제명 표목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하나의 원인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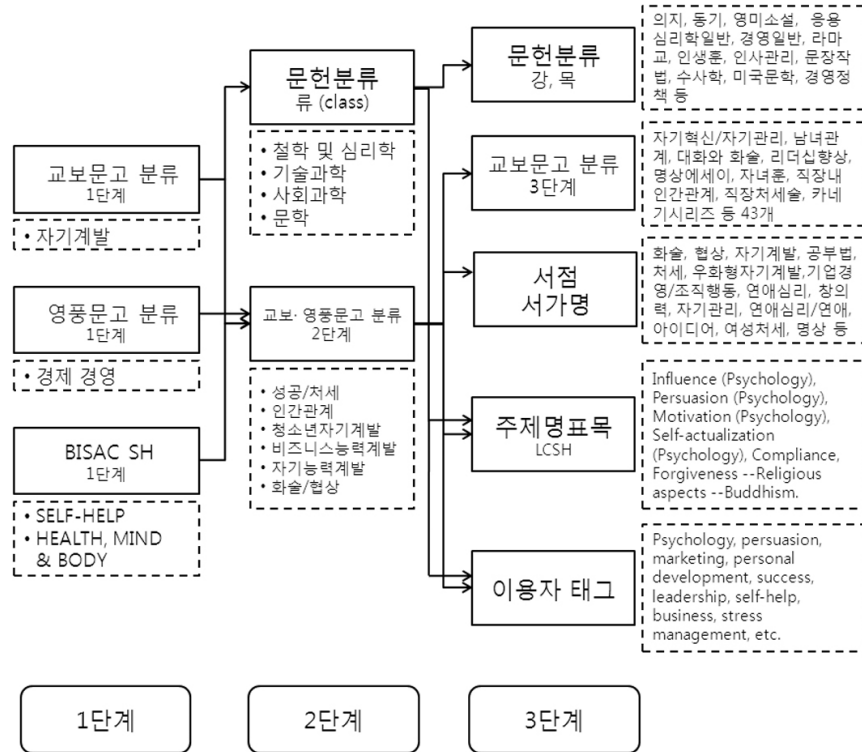
현실적으로 국내에서는 태그 정보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고 있으며 NLSH도 널리 사용되지 않으므로 국내 주제어분석 도구 중 가장 안정적으로 널리 쓰이는 것은 KDC라 할 수 있다. 따라서 KDC 표목을 기준으로 각 저작에 대해 부여된 크게 6가지 유형의 지식조직체계들에 나타난 주제어들을 비교하여 분석하면 6가지 유형의 주제어간에 유사점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6건, 자기계발 영역이 문학으로 분류되어 서점의 문학 분류와 유사한 경우 4건, 주제명표목

과 유사한 경우 4건, 주제어가 전체적으로 유사한 경우 3건, 주제어 기반 분류와 유사한 경우 2건, 태그와 유사한 경우 1건 및 데이터 부족으로 비교가 불가능한 경우 1건 등 다양한 사례가 분석되었다. 따라서 지식조직체계간에 어느 정도의 유사성은 있으나, 다양한 방식의 차이와 유사성의 양상을 보이므로 지식조직체계 각각의 특성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3.2.2 지식조직체계의 상호 관계

지식조직체계의 주제명은 상호 관계성의 차원에서 <그림 1>과 같이 단계별로 활용 가능성을 분석할 수 있다. 1단계는 대형 서점 분류의 대분류와 BISAC SH의 주표목 수준의 주제어이다. 분류 항목의 범주와 범주명으로 사용된 어휘의 크기는 다양하지만, 주제어 기반 분류에서 실제 청구기호로 사용되는 수준이다. 1단계의 주제어는 2단계의 문헌분류체계의 류(class)로 다시 범주화될 수 있고, 이는 다시 3단계의 강, 목 수준으로 하위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주제어 기반 분류에서 2단계의 문헌분류체계는 개념적인 분류에 해당한다. 실제로는 1단계의 주제어가 대형 서점의 2단계 수준의 주제어로 상세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분석된 주제어간의 범주화 양상은 1단계와 2단계 수준 중 서점 분류 2단계의 주제어 수준으로 대표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3단계의 주제어가 분류를 위한 주제어의 형식과 요건을 갖추어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교보문고의 '자기계발' 혹은 영풍문고의 '경영 경제' 항목으로 분류되는 저작들이 DDC의 기준에 의하면 앞선 <표 2>와 같이 '철학 및 심리학', '기술과학', '문학' 등으로 분류된



〈그림 1〉 지식조직체계의 단계별 활용 가능성

다. 그런데 이들은 교보문고의 분류 방식에 따라 분류하면 DDC의 철학 및 심리학류에 20개, 문학류에 2개가 분류될 것이고(중복분류 2건 포함), 영풍문고의 분류 항목 구분 방식에 따르면 DDC의 사회과학류에 12개, 문학류에 8개가 분류될 것이다. 그러나 일반 이용자들은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분야인 자기계발 서적들이 DDC의 주류 중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고, 이에 따라 주제어 기반 분류에서는 2단계의 서점 분류나 3단계의 다양한 어휘들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주제 범주화의 차원에서 살펴보면, 주제어 기반 분류에서는 서점의 분류 항목 1, 2단계와 같은 주제어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실제로 주제어 기반 분류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공공도서관의 주제명을 기준으로 비교 분석하면, 분류를 대체하는 주제명의 경우 다양한 지식조직체계 중 개념적 크기가 문헌분류체계와 가장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표목 어휘의 관점에서는 문헌분류체계와 주제명 기반 분류의 주제어가 유사한 경우가 2건 밖에 없었으나, 개념의 크기로 비교했을 때, 다른 지식조직체계는 주제어 기반 분류의 주제어에 비해 대부분 개념 크기가 작았다. BISAC SH를 이용한 주제어 기반 분류의 실제 사례 중 'SELF-HELP'에 해당하는 분류 사례를 보면, '일반(general)'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대분류-중분류의 수준(예: Self-Help, Personal Growth)에서 분류 주제어

가 부여되었고, 소분류 주제명(예: Happiness, Success, Self-Esteem)은 주제명표목이나 태그와 개념적 크기가 대체로 유사하였다. 따라서 분류 용도로 개발된 지식조직체계와 색인의 용도로 개발된 지식조직체계의 계층적인 개념적 크기를 고려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4. 주제명표 개발을 위한 지식조직체계 활용 방안

4.1 지식조직체계의 특성별 활용 방안

주제어 기반 분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주제명표를 개발하기 위하여 각 지식조직체계를 목적, 주제 항목 구성, 레이블(label) 및 표시방식, 장점, 단점 등을 기준으로 하여 주제어 기반 분류와 상호 비교 분석하면 <표 5>와 같다.

첫째, 목적의 측면이다. 주제어 기반 분류는 자료의 효과적인 배가를 통해 이용자 친화적인 브라우징을 제공하여 이용자 편의를 돕고 자료의 이용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주제어 기반 분류가 활용되는 유형들 중 듀이 프리는 주제어만으로 분류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개별적인 청구기호의 기능이 강하고, '주제어 + DDC'의 형태로 청구기호의 역할을 하는 혼합식의 경우, 듀이 프리와 마찬가지로 청구기호로서의 기능을 하며, 기존의 DDC 범주를 벗어나 새로운 관점에 따라 재범주화 하는 기능을 한다. DDC 기반의 청구기호를 유지한 채 주제어가 서가명이나 장서명으로 사용될 경우 역시 주제 범주화의 기능을 한다. MARC의 태그에 주제어가 입력되는 경우 검색에 사

용될 수 있는 주제 패킷으로서 기능한다.

분석 대상 중 이러한 목적에 가장 가까운 것은 대형서점의 분류 방식이라 할 수 있다. DDC나 KDC는 학문이나 지식의 범주화에 기반한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범주화의 기준이 현대 일반 이용자의 관점, 특히 공공도서관의 실용적인 장서 이용 목적과 차이가 있을 경우 이용자의 자료 접근에 어려움이 있다. 주제명표목 또한 문헌분류체계 기반의 분류에서 정형화된 추가의 주제 접근점을 제공하는 기능이 크므로 브라우징 방식의 검색에서는 유용성이 적다. 이용자 태그는 태깅 환경을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과 이용자 개인별로 목적이 다양하므로 목적의 측면에서는 주제어 기반 분류를 위한 주제어와 유사할 수도, 다를 수도 있어 일률적인 판단이 어렵다.

둘째, 주제 항목 구성의 측면이다. 주제어 기반 분류의 주제 항목 구성은 현재까지 대체로 BISAC SH를 기반으로 삼거나 자관의 기준에 따라 개발한 주제명표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BISAC SH의 경우 기본적으로 출판사와 서점 간의 주제 정보 교환을 위해 작성되었고 서점의 배열 기준으로 사용되므로 이용과 판매를 진작시키려는 목적이 최우선이다. 따라서 이용자의 구매 성향, 출판계 경향, 출판사의 판단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작성된다(BISG 2010). 자관의 개별적인 기준에 따라 주제명표를 개발한 경우에도 BISAC SH를 참고로 하여 자관의 장서와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였으므로 주제 범주화나 사용하는 주제어가 전통적인 문헌분류체계보다 대형 서점의 분류 방식 및 어휘에 가깝다. 서점의 분류 항목이나 서가명은 이용자의 흥미와 구매 성향, 판매

〈표 5〉 주제어 기반 분류용 주제명표 개발을 위한 지식조직체계 특성 비교

| | 주제어 기반 분류 | 문헌분류체계 | 대형 서점 분류 (교보·영풍문고 분류항목 및 서가명) | 주제명표목 | 이용자 태그 |
|--|---|---|---|---|--|
| 사례: 실용의 심리학 (Influence : science and practic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BUSI 658.45(Delta Township Library) Psychology, Self Help & Philosophy(Dewitt Library) | <ul style="list-style-type: none"> DDC KDC 153.8 Will (Volition) > 153.852 Persuasion 181.92 의지 Wil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개발, 화술, 협상, 자기계발, 공부법 화술, 협상, 자기계발, 공부법 스태디셀러, 전문서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fluence - Psychology Persuasion - Psychology Compliance 실용, 심리학(통제) 사람, 마음(비통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raryThing Amazon psychology, non-fiction, influence, marketing, persuasion(상위빈도순) influence, psychology, persuasion, communication skills, arketing(상위빈도순) |
| 목적 | 자료의 효과적인 배가를 통해 이용자 친화적인 브라우징을 제공하여 이용자 편의를 돕고 자료의 이용을 활성화 시키고자 함 | 자료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배가를 통해 검색성을 높이고 인접한 자료의 브라우징을 지원함 | 자료를 다양한 방식으로 배가하여 책의 노출을 극대화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 시키고자 함 | 색인이 및 검색어의 통제를 통해 정보의 축적과 검색의 효율성 증진시킴 | 개인 및 태그가 이루어지는 어울리케이션의 성격에 따라 다양함 |
| 주제 항목 구성 | BISAC SH 등 출판업계의 주제명표 및 자관의 기준에 따라 개발한 주제명표 | Harris, Bacon 등의 학문분류에 기반함 | 논리적 기준 보다는 도서 판매 증진을 위한 다양한 기준이 복합적으로 적용됨 | 전문가의 판단 | 해당 없음 |
| 주제 표현 방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어(Dewey Free) 주제어 + DDC 청구기호(혼합식) | 숫자와 문자로 청구기호 구성 | 일반적인 어휘 | 구조화된 주표목-세목 형식 | 제한 없음 |
| 장점 | 분류체계의 이해를 위해 특별한 지식이 필요치 않으며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음 |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학문 분류에 기반한 주제 근접화로 인정적이며 전문적인 주제 분야 자료의 조직과 이용에 효과적임 | 주제 분류가 유연성을 가지며 쉽고 친근한 분류 항목명의 사용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음 | 어휘의 통제로 인해 색인의 일관성 및 검색의 정확성을 높임 | 이용자 관점의 다양한 주제어, 최신성 있는 주제어를 제공하는 기반이 됨 |
| 단점 | 분류 항목 구성에 근거와 논리, 일관성이 부족하며 인정성이 떨어지고, 학제적 주제를 분류할 항목이 부재하거나 학술적인 영역의 분류 항목 설계가 미비함 | 일반인이 생각하는 동일한 주제라도 주제를 다루는 학문 분야에 따라 서로 다른 범주로 분산 배치됨 | 분류 항목 구성에 근거와 논리, 일관성이 부족하며 인정성이 떨어짐 | 유사한 어휘간의 선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주제어의 적절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제성이 없어 잡음이 많음 |
| 분류용 주제어로서의 특성 종합 | 심신분류에 비해 대부분 항목의 수가 많아 이용자 관점의 주제 범주화가 용이함 | 학문적 관점의 심신분류로 유연성 있는 범주화 가능성은 낮으나 어휘는 대체로 이용 가능함 | 이용자 관점의 범주화 가능성 높으나 범주화 가능성이 높고, 어휘는 이용자 친화적임 | 특유의 구조화된 체계와 복수로 부여되는 특성 상 그대로 사용하기 어려움 | 상의 빈도수 태그의 경우 주제어 기반 분류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대표성 있음 |

형태, 지역적 성향 등 다양한 기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정해지므로, 주제어 기반 분류가 근거로 삼는 BISAC SH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전통적인 분류체계는 학문 중심의 분류로서 큰 차이를 보인다.

셋째, 레이블의 어휘 및 형식의 측면이다. 주제어 기반 분류를 사용한 도서관에서 주제어는 분류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크게 두 가지의 기능을 하므로 주제어만으로 청구기호 레이블을 구성하거나 DDC 등 기존 문헌분류체계에 기반한 문숫자 기호에 주제어를 덧붙여 사용한다. DDC나 KDC와 같은 문헌분류의 표목을 주제어로 사용할 경우, 단지 기존의 범주화 방식이 유지되면서 분류번호를 해당 표목으로 바꾼 결과를 가져오게 될 뿐이므로 문헌분류체계의 범주화 방식이 갖는 한계를 그대로 지니게 될 것이다. 주제명표목의 경우 구조화된 형식의 주표목-부표목-세목 형식이나 도치표목, 한정어 등을 사용하고 하나의 저작에 대해 대부분 여러 개의 주제명표목을 부여한다. 이처럼 구조화된 형식은 청구기호의 역할을 해야 하는 분류 주제어로 그대로 사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어휘의 측면에서도 일반 어휘를 주로 사용하는 서점의 분류 및 이용자 태그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넷째, 각 지식조직체계가 가지는 장점의 측면이다. 주제어 기반 분류의 장점은 이용자의 관점을 고려하여 분류 항목을 구성하고 그 분류에 유연성이 있고, 어휘의 측면에서는 쉬운 분류 항목명을 사용하여 직관적인 이해와 친근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장점에 가장 가까운 것은 서점의 분류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지식조직체계인 문헌분류체

계와 주제명표목의 어휘는 통제어휘의 장점을 중요시하는 것이므로 주제어 기반 분류가 지향하는 유연성과 평이성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문헌분류체계의 경우 표목의 어휘가 주제어 기반 분류의 주제명과 크게 차이하지 않았으나, 십진분류라는 특성상 다양한 관점의 범주화가 부족한데서 비롯되는 유연성의 부족이 이용자 관점의 분류와 차이를 가져오는 주된 이유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주제어 기반 분류가 주로 사용되는 공공도서관의 상황에서 문헌분류의 표목을 그대로 주제어로 사용하는 것에는 어휘 보다는 범주화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제명표목의 어휘는 주로 색인 검색어휘로 사용되는 특성상, 유사한 어휘간의 선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주제 범주화가 부족하여 분류의 기준으로 사용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다. 이에 반해 태그 어휘는 전문가의 통제어휘가 제공하지 못하는 이용자 입장의 다양한 주제어, 최신성 있는 주제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다섯째, 각 지식조직체계가 가지는 단점의 측면이다. 서점의 분류 방식은 분류 항목 구성에 근거와 논리, 일관성이 부족하여 분류의 기능을 하기에는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서점의 분류 방식은 개별 도서관의 환경과 요구에 맞게 조정되어 일정한 체계성을 갖게 된다면 기존의 문헌분류 방식에 비해 이용자 친화적인 분류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태그는 일반적으로 비통제성으로 인해 데이터의 품질을 보장할 수 없고 개인화된 태그가 많이 나타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빈도수 최상위의 태

그인 경우 태그 어플리케이션 간에 거의 차이가 없고, 통제어휘와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태그가 가지는 규모의 힘을 바탕으로 주제 분석의 측면에서도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통제어휘가 미처 제시하지 못하는 신규 어휘나 이용자의 관점에서 보다 친숙한 용어를 분류 주제어로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4.2 고려 사항

주제어 기반 분류의 방식을 적용하기 위하여 주제명표 개발을 계획할 때, 특히 국내 환경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제어 기반 분류는 이용자의 관점을 우선시하는 것이므로 해당 도서관 이용자의 흥미와 특성을 파악하여 분류 항목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용자 흥미나 요구의 변화에 따른 항목의 변경과 그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의 지속적인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의 관심을 반영하여 분류 항목 구성 및 어휘 선택을 하되, 분류 체계로서 갖춰야 할 안정성의 정도를 정하고, 향후 주제명표 갱신 및 개정에 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주제 분석 도구가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용자 친화적인 주제 분류를 위한 주제명표 개발을 위해서는 상위 빈도수의 이용자 태그 정보를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실정에서는 태그의 문화가 발달하지 못하여 구축된 태그 정보가 빈약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용자 관점의 주제어 선정 및 분류 항목 구성을 위해 활용

가능한 방법은 KDC의 표목과 함께 서점의 분류 항목 및 서가명을 참조하는 것이다. 이때 책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서점과 도서관의 차이를 염두에 둔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셋째, 표목의 언어는 한국어를 기본으로 해야 할 것이다. 브라우저가 선호되는 공공 장서와 이용자가 대상이므로, 학술적인 목적보다는 일반 교양 및 오락적인 측면의 요구가 강하다고 볼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한국어 표목의 사용이 적합할 것이다. 따라서 외국의 품질 좋은 주제어 분석 도구나 주제 데이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을 것이며, 외국의 주제어 분석 도구를 활용할 경우 적절한 방식의 한글화가 관건이 될 수 있다.

넷째, 기존의 분류체계 표목이나 주제명표목의 어휘를 사용할 경우, 일반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고 적절한 길이를 갖도록 기존의 어휘를 축약하거나 유사개념의 어휘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야 할 수 있다. 또한 형식에 있어서 단일어를 우선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복합어를 허용할 것인지, 개념의 계층관계에서 몇 단계까지 주제어로 허용할 것인지 등 레이블의 형식에 관한 원칙과 방법론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이용자의 도서관 장서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미국 공공도서관의 주제어 기반 분류의 적용 및 그 긍정적인 결과에 주목하고, 이러한 추세와 관련하여 향후 국내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제어 기반 분류를 위한 주제명표의 개발에 관한 논의와 분석을 하

였다. 특히 이용자의 주제 검색 요구가 높은 데 반해 주제 목록이 발달하지 못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환경에서 주제어 기반의 분류는 유용성이 있을 것이므로 주제어 기반 분류를 위한 주제명표 개발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서구의 출판계, 서점, 도서관계는 저작의 주제 정보에 관한 상호 협력을 위해 주제명표목 혹은 주제 분류의 표준 체계를 만들어 정보조직을 위해 공유하고 자관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의 기반으로 활용할 만한 주제명 분석 도구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제명표 개발을 위해 기존의 다양한 지식조직체계의 주제어를 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20종의 저작을 대상으로 6가지 유형의 지식조직체계의 주제어를 추출하여 각각의 특성 및 상호적인 특성을 분석하고 주제명표 개발을 위한 고려사항을 논의하였다.

분석의 결과, 주제어 기반 분류를 위한 주제어의 개발을 위해서는 각 지식조직체계가 분류항목 구성 및 어휘의 측면에서 각각 장단점 및 상호 유사성과 차이를 가지고 있음을 파악하였고, 이들 특성을 고려하여 주제명표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을 밝혔다. 특히 기존에 일반적인

지식조직체계의 관점에서 분석되어 오던 문헌 분류체계와 주제명표목 등 전통적인 지식조직체계의 주제어를 상업적 영역의 주제어 및 이용자가 부여한 태그와 함께 상호 분석한 결과, 태그는 대체로 상업적인 영역의 주제어와 유사하지만, 최상위 빈도의 태그인 경우, 전통적인 문헌분류체계의 주제어와도 거의 일치하며, 주제어 기반 분류의 분류 주제명과도 일치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상업적 영역의 주제어 및 태그가 도서관 환경에서 분류를 대체하는 주제명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제 국내에서도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도서 자원의 공급 사슬 속에서 공유할 수 있는 주제명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주제명의 개발을 위해 기존 지식조직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본격화될 경우, 지식조직체계와 주제어 분류 체계간의 적절한 매핑 규칙이 마련되어야 하며, 개별 도서관 수준에서는 자관의 독특한 이용자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여건과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등 또 다른 다양한 작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제한된 주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주제 영역 전반에 걸쳐 주제어 개발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노지현. 2010. 장르 분류의 사례를 통해 본 도서관 분류의 의미: 북미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4): 151-169.
- 백지원. 2010. 주제어 기반 분류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4): 179-201.
- 백지원, 정연경. 2005. 지식조직체계의 용어관계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39(4): 119-138.
- 오경은, 김기영. 2008. 도서탐색용이성에 관한 연구: 공공도서관과 대형서점의 분류방식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25(4): 25-42.
- 한복희. 2003. 지식기반사회에서 이용자연구의 최신동향.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4): 295-310.
- BISG. 2010. BISG Subject Headings List. Major Subjects - 2010 Editions. [online]. [cited 2010.11.20]. <<http://www.bisg.org/what-we-do-0-136-bisac-subject-headings-list-major-subjects.php>>.
- Courtright, H. R. 2010. "The national impact of the Dewey-less library." *Public Libraries*, July/August 2010: 15-17.
- Kenney, Brian. 2007. "Desert storm." *School Library Journal*, 53(8): 9.
- Maltby, Arthur. 1978. *Sayers' manual of classification for librarians*. London: The Trinity Press.
- Sapiie, Jacquelyn. 1995. "Reader-interest classification."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19(3): 143-155.
- Woodward, Jeannette A. 2005. *Creating the Customer-Driven Library: Building on the Bookstore Model*.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부록〉 분석 대상 저작

| 번호 | 표제 | 원표제 | 저자 |
|----|-------------------------------|---|-------------------------------|
| 1 | 설득의 심리학 | Influence: the psychology of persuasion | Robert B. Cialdini |
| 2 | 선물 | The present: the gift that makes you happy and successful at work and in life | Spencer Johnson |
| 3 |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 Whale Done!: The Power of Positive Relationships | Kenneth Blanchard |
| 4 | 카네기 인간관계론 | How to win friends and influence people | Dale Carnegie |
| 5 |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라 (습관 바꾸기 편) | Don't Sweat The Small Stuff ...and it's all small stuff: simple ways to keep the little things from taking over your life | Richard Carlson |
| 6 | 용서 | The Wisdom of forgiveness | Dalai Lama |
| 7 |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 The seven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 | Stephen R. Covey |
| 8 | 경호 | Gung Ho! Turn On the People in Any Organization | Kenneth H. Blanchard |
| 9 | 우체부 프레드 | The Fred Factor: How Passion in Your Work and Life Can Turn the Ordinary Into the Extraordinary | Mark Sanborn |
| 10 | 남자들은 왜 여우같은 여자를 좋아할까? | Why men love bitches | Sherry Argov |
| 11 | 아무도 네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 Letters to his son | Philip D. S. Chesterfield |
| 12 |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 Fish! A Remarkable Way to Boost Morale and Improve Results | Stephen C. Lundin |
| 13 | 프로페셔널의 조건: 자기실현편 | The Essential drucker(Vols. I-III) | Peter F. Drucker |
| 14 | 논리의 기술 | The Minto pyramid principle | Barbara Minto |
| 15 | 당당하고 쿨하게 사는 여성들의 좋은 습관 | Clear your life | Gerti Samel, Sylvia Schneider |
| 16 | 위대한 상인의 비밀 | The Greatest salesman in the world | Og Mandino |
| 17 |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 Change is everybody's business | Pat McLagan |
| 18 | 더골 | The Goal: a process of ongoing improvement | Eliyahu M. Goldratt |
| 19 |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 | He's just not that into you | Liz Tuccillo |
| 20 | 피터 드러커의 자기경영노트 | The Effective executive | Peter F. Drucker |

